

학교 안 작은미술관 조성 '맞손'

전북교육청-한국미술재단, 업무협약 체결... 미술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 협력키로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학교 안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 5층 회의실에서 한국미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황의록 한국미술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미술을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에 협력을 약속했다. 학교 안 작은미술관은 복도,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해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국미술재단 소속 작가들의 작품 기증으로 이뤄진다. 한국미술재단은 2024~2025년까지 2년간 도내 초등학교 30개교에 소속 작가의 작품을 기증, 찾아가는 미술교육과 화가와 학생작품 공동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작품 운송, 설치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기증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또한 조성된 학교 안 작은미술관을 관리하고, 매년 학교 간 작품들을 순환 배치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내년도 사업



전북교육청은 한국미술재단과 20일 5층 회의실에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학교 안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진 학교 15개교를 선정할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국미술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증해 준 작품들을 잘 관리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판타지 뮤지컬 '멋진 신세계' 공연

다음극악관현악단, 오늘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2023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다음극악관현악단(대표 설영원)이 21일 오후 7시30분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판타지 뮤지컬 '멋진 신세계'를 선보인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창작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창작 작품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원작 멋진 신세계를 각색한 것으로 자본주의와 전체주의가 결합된 미래사회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판타지 뮤지컬이다. 이는 핵전쟁이 지나간 인류 세계는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살아남은 이들은 척박한 곳에서 방사선에 피복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용이다. 공연은 강한준 연출감독이 연출, 작곡, 지휘를 맡았으며 제작진 10명, 배우 6명, 오케스트라 25조, 스태프 15명 등 총 56명이다. 주인공으로 존役に 이정원, 페니役に 진은영, 버나드役に 김도희, 토마스役に 박재훈 배우가 참여한다. 또 린다役に 소프라노 이은선, 무스타파 몬드役に 바리톤



김승태가 함께한다. 강한준 감독은 "20세기 고전작품 토대 위에 한국의 선율을 입혀 선보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2)과 다음극악관현악단(010-6689-083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 체험도구 3종 개발

안내 책자 · 영상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 공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전통공예 체험도구 3종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전통상품 개발역량을 강화해 현대의 문화소비 유행에 발맞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무형유산 전통공예 활용 연구 과정을 운영, 참가자에게는 연구 활동비와 재료비를 지원했다. 선발된 이수자들은 올해 3월부터 특강과 자문, 견학 등을 거쳐 체험도구 구상과 개발서 작성,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했다. 참가 결과, 소목장 이재용 이수자는 '활비'



와 '돌대송곳'이라는 전통도구로 직접 작은 크기의 소반을 만들 수 있는 <전통도구를 활용한 약소반 트레이>를, 누비장 하은정 이수자는 태

극 형태의 잔받침을 만들 수 있는 <톡톡, 톱, 어울림 누비>를, 침선장 김영숙 이수자는 한쪽 모서리가 저고리 모양으로 된 보자기를 만들 수 있는 <침선, 보자기에 저고리를 더하다>를 각각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전통공예 체험도구 3종의 체험 안내 책자와 영상은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돼 누구나 재미있게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체험도구의 지식재산권을 각 이수자들이 소유하도록 하고, 이수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함께 공개해 전통공예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전승자에게 직접 체험도구를 구매하거나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7기 아티스트 6팀 앨범 발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이하 레드콘) 뮤지션 6팀의 앨범이 발매된다. 레드콘 신인 뮤지션(7기)로 선정된 '고니밴드', '국악예술단 교향', '신민수'와 기성 뮤지션 '슬로우진', '바람처럼', '커런트무드'는 각기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을 가진

뮤지션으로서 록, 인디, 퓨전 재즈, 국악,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특별한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션들의 창의적이고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앨범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음악 세계를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드콘이 진행한 '2023 음원·음반 제작 지원 사업'은 레드콘 뮤지션을 대상으로 프로듀

싱,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등 음원 제작과 발매 전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슬로우진 팀 앨범 제작에는 201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상을 받은 밴드 '단편선과 선원들'의 리더 단편선이 프로듀서로 함께 참여해 더 기대를 모은다. 이번 레드콘 뮤지션의 디지털 음원은 12월 말 국내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통될 예정이다. 더불어 앨범별 타이틀곡 총 6곡을 담아 제작한 컴필레이션 LP로도 각 뮤지션의 신곡을 만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22일 '뮤지엄 나이트 투어'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도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JMA FRIENDS EVENT '뮤지엄 나이트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미술관을 야간 개장해 관람의 전시해설 및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후 5시부터 이애선 관장과 각 전시의 기획자들이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 관람'을 진행하여 전시 작품을 만나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저녁부터는 미술관의 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인디밴드 '슬로우진'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성수 모던재즈트리오'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을 저녁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 마지막 행사로 어둠이 내린 밤의 미술관을 마주하며 낮에는 발견하지 못한 미술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추억과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관 홈페이지 신청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행사 이외에도 미술관에서는 거대서사와 권력에 저항하는 카자흐스탄의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는 전시 '가운뎃대 이야기', 대상의 핵심과 자신의 해석으로써 의미의 작품 세계



를 제시하는 전시 '그리모어는 풍경, 의미의주'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와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 및 인스타그램(jeonbukmuseumofart)과 JMA FRIENDS 공식 SNS(jma_friends), 페이스북(jnamuseum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이었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